

報 告

日本에 있어서의 最近의 社會經濟史研究動向

—地方史研究를 中心으로—

金 柄 夏

(日本 大阪大學大學院·博士課程)

戰後의 日本社會經濟史學의 諸業績을 全部 枚舉하여 全般的으로 紹介하기란 限定된 紙面으로는 不可能한 일이며, 또 各 時代와 分野別로 學問의 分化가 極度로 이루어지고 있는 現研究 段階에서는 筆者의 能力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主로 最近에 顯著히 나타난 傾向을 紹介하고 筆者의 見解를 加함으로써 주어진 筆責을 免할가 한다.

I

日本の 社會經濟史學은 戰後에 가장 飛躍의으로 發展한 社會科學部門에 屬한다고 한다. 1920年代에 盛行되었던 經濟史學은 戰時의 沈滯期를 벗어나 時代의 脚光을 받게 되었으며,從來에는 想像도 못하였던 새로운 成果들이 나타났고 不明하였던 問題들이 解明되었거나 혹은 解明의 可能性을 提示하는 蓄積이 이루어지고 있다.

最近에 日本の 學界와 社會를 風靡한 歷史 붐에 대하여 或者는 말하기를 戰爭時期의 彈壓乃至 制約에 대한 反作用現象이라고도 하고, 혹은 空白期의 渴症에서 招來된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한편 學界만을 分離시켜서 볼 때 社會科學의 本質의 研究는 歷史의 研究에 立脚해야 한다는 普遍的인 思考方式이 認識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 같다.

歷史學研究에 있어서 經濟史研究가 차지하는 重要性에 대하여서는 贅言을 要치 않는 바이나 最近의 歷史의 研究는 全體로서 顯著하게 社會經濟史에 기울어지고 있는 傾向이 있다. 政治史나 法制史는 勿論이고 文化史의 領域에 있어서도 그 基礎構造로서 社會經濟史의 考察을 要請받게 되었다. 그리고 史學이나 經濟學뿐만 아니라 隣接한 社會學 地理學等이 經濟史學에 接近하고 있어 經濟史의 領域은 擴大되고, 따라서 그 限界·範圍는 曖昧하여진 傾向도 없지 않다.

II

終戰直後의 真空狀態에서 經濟學·歷史學研究가 解放되었을 때 昭和初期에 盛行하였던 唯物史觀이 다시 擡頭되어 支配的인 地位를 차지하는 傾向이 있었으나 最近에 와서는 그 樣相을 달리하여 熾烈하였던 日本の 「封建論爭」도 戰前과 같은 모습의 것이 아니었다. 웨버의 所說을 援用하면서 獨自의인 方法을 追求하고 있다. 오늘날 大塚史學이 國際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도 이와 같은 研究背景의 所産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實證史學」의 成果는 결코 輕視할 수 없다. 最近에 西歐諸國의 著書, 雜誌 및 資料의 入手가 順調로워지고 研究者의 海外派遣이 頻繁하여 짐에 따라 「實證史學」에의 關心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國際的인 契機에 의하여 比較的 뒤늦게 出發한 「實證史學」의 成果가 本格的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48년부터 이다. 1948년부터 1953년에 걸쳐 近世庶民史料

調査委員會가 行한 地方史料의 所在調査, 文部省史料館의 設置와 史料의 蒐集・保存等은 地方史研究에의 길을 열어 주었다. 1950년에는「日本史研究의 基礎인 地方史研究을 推進시킬것을 目的으로 하는」地方史研究協議會가 設立되었고, 다음 해인 1951년에는「地方史研究」誌의 創刊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瀧川政次郎氏를 中心으로 地方史研究所가 設立되었다. 戰前에도 郷土史란 이름의 分散的인 地方史研究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오늘날의 地方史研究는 單純한 심심풀이가 아니라 日本經濟史나 日本史研究의 基盤으로써 不可缺한 前提條件 乃至는 充分條件으로 되었다. 거기서 研究되는 經濟史도 從前과 같이 經濟制度史나 經濟政策史를 主內容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時代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生活을 하였나 하는 經濟生活史인 것이며, 特히 過去에 있어서 庶民의 日常生活行動의 解明에 重點을 둘으로써 經濟史本來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한다.

III

이와 같은 研究動向은 戰後에 있어서 日本에서만 볼 수 있는 特有한 現象은 아닌 것이다. 英獨佛의 學界가 最近에 地方史研究를 가지고 歷史學의 重要한 部分으로 하고 있다는 事實은 外國의 文獻을 通하여서 뿐만 아니라 社會經濟史學會年次發表會나 地方部會의 月例세미나時에 行하여지는 外遊에서 돌아 온 學者들의 報告를 通하여 充分히 把握할 수 있다. 英國에 대하여 보더라도 地方史研究는 地方史를 위한 研究에 그치지 않고 英國經濟史를 反映하는 小宇宙로써 貢獻케 하려 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英國에 있어서의 地方史研究의 傳統은 꽤 오래다. 大部分의 州에는 歷史學會가 存在하고 機關誌의 刊行, 혹은 史料集의 編纂을 하고 있으며 그 頂點에서 Victoria Country History가 刊行되고 있어서 地方史研究가 어느程度 英國全般의 研究에 結附되고 있는 것이다. 獨逸에 있어서도 最近의 顯著한 傾向의 하나로써 地方史研究가 單純한 一局部의 個別研究에 그치지 않고 研究成果를 根底로부터 吟味하고 修正하는데 利用되고 있다. 프랑스에 있어서는 傳統으로 個別的 特殊研究를 즐기는 學風이 있으나 만치 地方史研究가 盛行한다는 것은 當然한 歸結일 것으로 보지만 最近에는 豊富한 史料와 地方史의 研究를 土臺로 한 統計的 研究의 成果가 續續 나타나고 있는 實情이다.

IV

이와 같은 西歐學界의 影響을 받은 日本의 經濟史學界는 先進的 業績을 倣함 없이 吸收하면서 獨自의 進路를 開拓하고 있다. 西洋經濟史學者들도 이미 그곳에서 刊行된 概說書나 若干의 研究論文程度까지 滿足하는 段階는 지났고 具體的 地域에 있어서의 具體的인 事實關係의 把握없이 는 아득소리로 못하게 되었다. 最近에 와서 이곳 西洋史學界가 앞을 다투어 外國의 地方史나 研究文獻을 入手하려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다. 入手할 수 없는 것은 마이크로 필름 같은 것으로 購入하기도 한다. 特히 英國地方史學會의 刊行物에 대한 需要는 顯著한 것 같다.

日本의 地方史研究가 最近에 急速度로 發展한 것은 以上과 같은 國際的인 움직임에 刺戟받은 것이기는 하나 한편 豊富한 藩政關係 資料가 保存되고 續續 刊行되고 있다는데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文獻目錄은 戰前에 이어서 繼續刊行되고 있다. 本庄榮次郎氏等의 共編「日本經濟史第三文獻」(1953)과「日本經濟史文獻」(1959)이 刊行되었고 世界唯一의 規模와 內容을 자랑하는「日本經濟史辭典」도 再刊되어 研究家들에게 많은 便宜를 提供하고 있다. 史料集으로는「大日本古記錄」(1952)과「大日本近世史料」(1953)가 새로 刊行을 보게 되었으며, 龍大한「大阪商業史資料」(1964)를 비롯한 各地의 地方史料가 刊行되어 몇몇 사람이나 機關의 獨占狀態에서 벗어나고 있다.

V

地方史의 研究를 基礎로 하여 進行되는 考古學에 대하여서도 戰前에는 想像도 못했을 程度로 많은 成果가 나타났다. 特히 岩宿의 遺跡에서 關東로오쿠層에 埋沒된 石器를 發見하였다는 것은 考古學研究史上에서 劃期的인 事實이었다. 이것은 所謂「無土器文化」의 記念할만한 最初의 發見이었고, 發見以後 各地研究者의 끊임 없는 努力에 의하여 無土器文化는 北海道로부터 九州에 이르기까지 日本全土에 걸쳐 存在하였다는 것을 解明하였다.

古代史部門에 대하여서는 群集墳研究, 條里制研究, 村落構造研究, 地方豪族에 관한 研究等に 學者들의 關心이 集中되고 있으며, 離島の 調査研究도 活氣를 올리고 있다. 關雅之氏의 「佐渡彌生式文化의 諸問題」(『古代學研究』23)와 對馬遺跡調査會의 「長崎縣對馬島調査報告」(『考古學雜誌』49-1, 2) 등은 所謂「縱의 不連續性」과 「橫의 連續性」을 實證의으로 究明하는 問題에 대한 研究・報告인 것이다. 그러나 地方史研究의 全體의 比重으로 말하자면 中世史와 近世史가 壓倒的이라 할 수 있다.

莊園制가 日本의 社會構成史上에서 차지하는 歷史的 位置가 어떤 것인가의 問題에 대하여서는 1935年頃부터 論難되어 왔으나 아직도 定說은 없다. 莊園制의 本質究明은 律令制研究가 先行되어야 하기 때문에 最近에는 律令制研究에 一層 많은 關心이 쏠리고 있는 것 같으며, 또 世界史의 觀點에서 日本의 莊園制를 再檢討하려는 一連의 움직임이 있다. 安良城昭는 律令體制가 總體的 奴隸制의 最後의 段階(그 基礎인 아시아의 共同體가 解體되기 시작한 段階)이며 未發達한 奴隸制의 時代로 規定하고 그 否定으로 나타나는 莊園制나 名田經營에 있어서 家父長制의 奴隸制가 展開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名主는 家父長의 奴隸主이고 幕藩體制下의 典型的인 封建的 小農인 本百姓과 區別하여 考察하고 있다.

이 說은 從來에 曖昧하게 規定되었던 名田經營에 대해서 家父長의 奴隸制經營을 本質로 한다는 點을 밝혔고, 그것을 基礎로 하는 莊園制도 特殊한 形態이기는 하나 日本에 있어서의 奴隸制의 一形態로 보고 있다. 즉 莊園體制=名田經營이 11, 2世紀以後 封建的 小農經營을 보게 됨으로써 變質하였다는 從來의 認識에 대하여 莊園體制自體가 家父長의 奴隸制經營을 本質로 한 日本特有의 奴隸制社會形態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奴隸制를 政策的 制度的으로 廢棄하는 意義를 가진 太閤檢地는 밑으로부터의 封建革命의 길을 成功시킨 것으로 보아 높이 評價하게 이르고, 中世(鎌倉時代)와 近世(江戶時代)를 封建制로 보아 中世를 分權의 封建制로 規定하고 近世를 集權의 封建制로 規定하였던 戰前의 理論을 否認하게 되었다.

以上の 安良城說에 대하여 莊園制=封建制說이 있다. 이것은 律令體制의 崩解期에 있어서의 國衙領이나 初期莊園內部에서의 農業經營을 班田農民의 分解에 의하여 나타난 富豪經營 혹은 名主名主經營으로 把握하고 奴隸制勞動力을 基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小作制의인 小經營의 萌芽가 包含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11, 2世紀以後에 있어서는 莊園이거나 國衙領이거나를 莫論하고 그와 같은 富豪・名主經營內部에서 封建領主-農奴의 關係가 展開되고 莊園制도 封建的인 本質을 갖게 된다고 한다. (黑田俊雄「莊園制의 基本的性格과 領主制」中世社會의 基本構造所收, 戶田芳實「中世成立期の 所有와 經營에 대하여」日本史研究 47號等)

日本의 莊園制가 차지하는 歷史的 位置에 대하여 아직까지 定說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理由의 하나는 莊園制 그 自體가 時代的 地域的인 多樣性을 갖는데 있다. 從來에는 史料의 制約으로 말미암아 寺社領莊園에 대한 成果가 많으며, 그 結果 莊園支配의 原理가 土地支配에 있고 人間支配는 包含되지 않는다고 보아 封建制와의 異質의 側面을 追究하는 傾向도 있으나(竹

內理三「日本の 莊園制와 封建制」史學雜誌 63의 1, 2) 莊園制를 日本의 社會構成史에 차지하는 位置를 規定하기에는 아직도 業績의 不足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戰後 中世史에 대한 關心이 領主制에 集中됨에 따라 武士階級에 대한 研究業績도 相當한 量에 達하고 있다. 그러나 武士團에 관한 研究는 莊園制나 中世村落等에 關聯된 것이 大部分이고 地方史의인 것, 즉 그 地方에서 生活하고 있던 武士團의 모습을 그 地域社會의 歷史發展속에서 追求한 業績은 그리 많지 못하다. 戰國大名에 대하여서도 明治以來 各地에서 編纂된 地方史(縣, 市, 郡史)를 基本文獻으로 삼아 꾸준히 研究되고 있으나 日本封建社會의 歷史的 位置에 대한 明確한 解答을 얻기 위하여서도 村落共同體나 檢地, 家族等を 包含한 具體的이며 綜合的인 研究成果가 期待된다.

商業史는 經濟史中에서도 가장 일찍부터 研究된 部門이므로 大部分의 縣郡志와 市町村志는 商業史에 많은 配慮를 하고 있으며, 研究論文 以外에도 個別的인 同業組合와 市場의 沿革史가 多數 出版되고 있다.

戰後에 있어서 商業史研究의 基本的 視角을 이루는 것은 社會分業이라 할 수 있다. 社會分業이 造成하는 市場關係에서 商品은 流通하고, 商品流通을 實現하는 것이 交通이라 할 수 있으므로 社會分業의 存在樣式이 社會의 構造體系를 規定한다는 前提가 設定된다. 그리하여 商品流通은 交通과 結附된 形態로 社會構造體系의 理解에 問題意識을 가지면서 追究되고 있다.

去來制度나 商業者의 組織等에 主題를 둔 研究는 戰前과 戰後를 通하여 相當한 數에 달하고 있다. 農業史에 古典的 業績을 남긴 戶谷敏之氏의 肥料商에 관한 研究 같은 것은 그 顯著的한 例의 하나이다. 이 論文은 一見 商人의 內部組織을 取扱함에 지나지 않는 것 같으나 實은 農業에 있어서의 商品經濟의 發展을 金肥의 流通過程을 通하여 把握하는데 主目標을 두고 있는 것이다. 戶谷敏之氏의 未完成된 業績을 發展의 으로 繼承한 學者는 古島敏雄氏이다. 古島氏는 戰後의 새로운 成果를 받아드려 好評 받았던 「日本農業史」(1956)의 著者로 有名하거나 氏의 商品流通에 관한 一連의 論文은 從來에 不明하였던 問題들을 解明하였다. 氏는 또 「社會構成史大系」(1949)中에서 「近世에 있어서의 商業的 農業의 展開」를 論하였고 農業生産力의 發展, 商品으로서의 農產物의 生産販賣가 全社會에 어떻게 關聯하고 있는가를 把握하기 위하여서는 流通過程의 分析이 必要하다는 見地에 立脚해서 「江戸時代의 商品流通과 交通」(1954)을 著作하였다. 이것은 大阪市史와 信州中馬에서 具體的인 素材를 求한 것인데, 그 構成의 正確性과 綜合性으로 말미암아 流通史上의 業績으로 높이 評價되고 있다.

한편 局地市場의 問題는 大塚久雄教授의 資本制成立에 관한 理論을 日本의 幕末期에 實證하려고 試圖한 代表的인 業績으로서 塩澤君夫, 川浦康次 兩氏의 「寄生地主制論」(1957)을 들 수 있다. 이것은 封建制에 照應하는 隔地間流通이 農民의 小브르조아 經濟의 發展이 惹起시키는 局地市場圈의 展開에 의하여 崩壞되었다는 테에마를 尾張西部의 綿業地帶에 素材를 求하여 立證하려 한 것으로 日本의 史學界에 많은 反響을 이르켰다.

個別的 研究가 推進됨에 따라 市場의 存在樣式이 地域의 으로 相異하고 權力의 流通過程에의 介入도 相異하다는 事實이 明白하여졌다. 最近에는 特히 畿內의 商業的 農業地帶에 있어서의 在郷町과 在郷商人의 發展에 精力的인 研究가 集中되는 傾向이 있다. 大阪歷史學會가 編纂한 論文集「封建社會의 町과 村」(1960)은 後者에 焦點을 맞춘 力篇集이다. 同一한 商業的 農產物이면서 綿花와 菜種은 그 流通形態를 달리한다는 點과 또 그와 같은 先進地에 있어서의 米穀의 商品性等이 問題로 되고 있다는 點은 그만큼 研究의 精密性이 增大되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元來 商品이나 貨幣같은 것은 流通의 現象面을 計量的인 數値의 關係에서 考察되는 것이고 또한 歷史研究의 分野로서 그 以前의 메카니즘의 特殊性에 着眼되어 왔다. 이와 같은 研

究의 傳統은 經營史研究의 開拓者로 알려진 宮本又次教授의 戰後의 業績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宮本教授는 戰前의 問屋制度에 관한 一連의 研究에 이어 戰後에는 大阪町人에 관한 諸研究와 「續日本近世問屋制의 研究」(1954)를 發表하였고, 最近에도 西洋經濟史와 日本經濟史에 관한 많은 力作을 내고 있다.

한편 相異한 經濟發展段階에 있는 諸地域의 統合樣式을 把握하는 要請이 强하여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解明을 試圖한 것으로 安岡重明氏의 「日本封建經濟政策史論」(1959)을 들 수 있다. 安岡氏는 本書에서 權力의 領國經濟에 대한 把握의 強弱을 基準으로 한 領國・非領國의 概念構成을 提起하였다. 그리고 戰後에 있어서 研究가 가장 뒤떨어졌던 貨幣史研究에 많은 業績을 올린 作道洋太郎氏의 「近世日本貨幣史」(1958)도 同一한 措定에 立脚하여 信用貨幣의 問題를 取扱하고 있다.

VI

日本資本主義의 歷史的 起點이었던 明治維新을 惹起시킨 이니시아티브가 具體的으로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서는 戰前戰後를 통하여 長久한 研究史를 갖고 있다. 이런 경우 纖維工業은 그와 같은 內發的 發展의 擔當者로서 가장 重要한 産業의 하나이며 資本主義의 生産關係가 早期的으로 形成된 部門이었다고 한다. 地方史研究協議會編 「日本産業史大系」(1961)第1卷 p. 245 以下參照) 따라서 이와 같은 視角으로서의 纖維工業에 관한 研究는 昭和初期 以來 가장 活潑하게 進行되었고, 所謂 「매뉴팩처어 論爭」을 통하여 그 經濟的 發展의 程度와 歷史的 性格에 관하여 여러가지 問題가 提起되었던 것이다.

戰後에 있어서의 纖維工業에 관한 研究도 1948年 以後에 그 業績이 顯著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研究의 첫째 特徵은 對象으로 하는 地域이 全體內에서 어떠한 位置를 차지하는가를 確定하고 또 그 地域이 어떠한 特質을 갖고 있는가를 明白히 한 然後에 個別事例를 分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기서 明白하여진 一定한 認識은 以上の 操作을 經由함으로써 어느 程度 一般化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分析을 可能하게 한 것은 山口和雄氏의 「明治前期經濟의 分析」(1956)인데, 그 依據資料는 明治文獻資料刊行會編 「明治前期産業發達史資料」(1960)란 名稱으로 刊行되었다. 그리고 「明治7年府縣物產表」 「府縣統計書」, 「農商務統計書」, 「勸業年報」, 「工場統計表」, 「工場通覽」等の 各種統計資料를 驅使하여 纖維工業이 産業部門에서 차지하는 地位, 地域類型의 設定, 生産形態의 發展過程等の 分析을 試圖한 것으로 三瓶孝子氏의 「機業에 있어서의 問屋制家內工業 및 매뉴팩처어」(「歷史學研究」192)와 市川孝正 「我國에 있어서의 織物業의 發達過程과 足利織物」(「經濟史學」10) 등이 있으며, 또 이 統計資料와 對象地域의 「郡村誌」, 「役場資料」等を 結合하여 本來의 生産物統計가 提示하는 以上の 事實을 밝힐 수 있음을 檢證한 것으로 江波戶昭氏의 「諏訪製糸業地域의 變貌過程」(「東洋文化」24)과 「西毛養蠶業地域의 變貌過程」(「經濟地理年報」5)이 있고, 古島敏雄氏의 「明治初期産業發展의 一斷面」(「土地制度史學」9)이 있다.

戰後研究의 둘째 特徵은 特定한 地域의 纖維工業에 대한 個別分析이 그 地域을 圍繞한 一般的 條件과의 關聯에서 究明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리고 戰前의 諸研究에서와 같이 各地의 個別事例의 例示의인 實證이 아니고 一村落 乃至 地域의인 規模로 史料操作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全體의인 把握을 可能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研究의 先驅의 業績은 庄司吉之助氏의 一連의 勞作 「幕末明治初年에 있어서의 川俣地方平絹生産의 構造」(「東北經濟」7), 「明治十年代의 羽二重・平絹生産의 形態」(同上 11), 「明治初年에 있어서의 資本의 存在形態」(「歷史學研究」170), 「川俣地方羽二重機業의 史的展開」 「川俣機業의 構造」1953年所收), 「川俣地方

「二重機業發達史」(1953)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經營史料에 의한 織物業의 經營形態가 分析되고 있다.

近世에 있어서의 '一村의'乃至 地域의 展開過程을 把握할 수 있는 史料는 흔히 領主側의 必要에 의하여 作成된 것이다. 例컨데 尾西地方에서 領主와 織機所有者에 대하여「運上金」을 賦課할 때 作成한 「織屋機子調」와 「結城機留稿(어음金調帳)」과 같은 史料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史料를 中心으로 하여 織物業의 生産形態를 分析한 것으로서 中村哲氏「幕末에 있어서의 農村工業의 展開」(『日本史研究』28), 塩澤君夫・川浦康次 兩氏共著「寄生地主制論」(1958), 林英夫氏「近世農村工業史의 基礎過程」(1960) 등이 있다. 이들 業績은 높은 理論의 水準에 立脚해서 단지 織物業에 있어서의 生産形態의 發展度를 測定함에 그치지 않고 社會의 分業의 展開度나 地主制와 產業資本과의 內面的인 聯關性 등을 問題로 하고 있으며, 戰後의 研究水準을 表明하는 것이다. 그리고 池田敬正氏「宮津藩에 있어서의 藩政改革」, 「藩政改革의 研究」(1955)는 「丹後機業에 關하여 分析한 것이며, 岡光夫氏「長州藩瀬戸內農村에 있어서의 商品生産形態」(『歷史學研究』159)와 芝原拓自氏「幕末에 있어서의 政治의 對抗의 基礎의 形成」(『土地制度史學』10)은 廣泛한 地域의 「村明細帳」(防長風土注進案)에 의한 商品生産(織物生産)의 展開度에 關한 分析이다. 그리고 和泉北部의 木綿織業을 究명한 津田秀夫氏「幕末期大阪周邊에 있어서의 農民鬭爭」(『社會經濟史學』21의4), 「幕末期의 雇傭勞動에 對하여」(『土地制度史學』8)도 거의 同一한 性格의 史料에 의한 分析이다.

領主側史料 以外에 商人이나 生産者의 「仲間」關係史料도 있는데 이것은 領主側史料와 더불어 全體的인 把握을 可能케 하고 있으며, 이들 史料의 利用에 의하여 生産物의 數量・價格, 生産手段의 所有狀況, 土地所有와 農村經營의 狀態, 雇傭勞動力의 分布狀況, 生産構造의 諸側面에 關한 諸資料가 多角的으로 分析되고 있다. 이들 史料의 무게인 比重을 領主側史料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史料性格의 制約으로 말미암아 諸經營의 生産過程을 一層 具體的으로 分析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分析을 可能케 하기 위하여 最近에는 「織屋」이나 製糸家의 經營史料를 새로 發掘하고 分析하려는 움직임이 急速히 進展되고 있다. 이 點은 戰後研究의 새 特徵이라 할 수 있는데, 例를 들면 工藤恭吉氏「明治前期에 있어서의 足利周邊의 村과 賃織業者의 存在形態」(『經濟史學』10), 市川孝正氏「幕末=明治初期의 織物業에 있어서의 直接的生産者의 存在形態」(『土地制度史學』4), 安岡重明氏「商業의 發展과 農村構造」(宮本又次氏編「商業의 農業의 展開」1955, 所收) 등이 그것이다.

製糸業에 關한 研究도 많은 成果를 올리고 있다. 몇가지 例를 들면 高橋幸八郎・古島敏雄 兩氏共編「養蠶業의 發達과 地主制」(1958)는 豊富한 史料로 養蠶業經營의 構造轉換과 地主制形成과의 聯關을 究명한 것이며, 山田武麿氏「近代養蠶地帶에 있어서의 地主制의 展開와 賃挽製糸形態」(『土地制度史學』2), 井上定幸氏「近世期農村奉公人의 展開過程」(『歷史學評論』95)는 關東北部의 養蠶地帶에 關한 研究이다. 그리고 欠木明夫氏著「日本近代製糸業의 成立」(1960)은 長野縣岡谷地方을 對象으로 하여 日本製糸業의 近代化過程을 農村構造와 關聯시켜 究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戰後에 있어서의 近代纖維工業의 研究는 다른 產業部門의 研究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그 生産構造의 分析을 商品流通・市場構造와 關聯시켜서 檢討하고 있다. 즉 商品生産을 媒介로하는 流過程의 擔當者인 商人層의 性格이나 機能, 商品生産者와 市場과의 關係等의 分析을 通하여 諸段階에 있어서의 商品生産의 歷史의 性格을 把握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視角에 立脚한 研究는 森岡美子氏「荷受問屋資本의 生産地投下의 諸形態」(『史學雜誌』59의1), 梶西光速氏「近代八王子機業에 있어서의 商人資本의 展開」(『經濟志林』18의4), 住谷悅

治氏「丹後機業의 構造分析」(1952) 등이 있다.

VII

物價史研究은 가장 뒤떨어진 部分이었는데 最近에는 東京大學, 京都大學, 大阪大學의 帝國立大學에서 共同研究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미 그 成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京大近世物價史研究會「15~17世紀의 物價變動의 研究」(1963), 阪大近世物價史研究會의「近世大阪의 物價와 利子」(1963)는 共同研究에 있어서의 史觀의 統一이란 難問題를 克服하고 從來에 等閑視하였던 分野를 開拓함으로써 好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分野에의 摸索은 經營理念史面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土屋喬雄教授가 最近에 著作한「日本經營理念史」(1964)는 昨年(第32回)社會經濟史學會大會時에 그 要旨를 發表하여 많은 批判을 받은 바 있거니와 經營理念史研究에 관한 最近의 代表的 著作이라 할 수 있다. 本書는 웨버의「資本主義의 精神」觀을 批判하고 江戸時代의 商人和 經營理念을 論하여 日本經營哲學의 確立을 志向한 것인데, 全體的으로 보아 精密性이 不足하며 아직도 研究할 餘地가 많은 것 같다.

VIII

以上 最近의 顯著한 特徵인 地方史研究를 中心으로 日本의 社會經濟史研究動向을 概觀하였다. 비잔틴經濟史研究도 活潑해지고 있으며 中國經濟史나 韓國經濟史部門에 있어서도 優秀한 研究成果가 나타나고 있으나 最近의 特徵인 現象은 무엇보다도 地方史研究라 할 수 있다. 日本의 歷史 畧은 地方史 畧에 直結되었고, 各都道府縣에 있는 數 많은 地方史研究團體에서는 가지가지의 研究誌를 發刊하고 있으며 史料의 調査와 刊行・展示等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調査・研究의 成果는 小・中學校의 地域社會教材로 利用되고 있으며, 中央에서는 全國的인 體系化가 試圖되고 있다. 筆者는 韓國의 教育問題에 대하여 깊은 素養이 없으나 教科書나 參考書籍이 없이 어떻게 地域社會教育을 圓滿히 할 수 있는지 疑問이다. 單純히「鄉土의 歷史와 現狀을 알아보자」라는 題目으로 몇 單元을 割愛하더라도 所期의 成果는 얻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 韓國經濟史研究의 土臺로서의 地方史研究도 時急한 問題이며, 庶民史料의 發掘事業도 全國的 規模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基礎作業을 통한「實證的」研究가 없는 限 韓國經濟史研究은 언제나 國際的 水準에서 落後됨을 免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實證的」研究라 함은 問題意識을 二次的인 것으로 미루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複雜하고 龐大한 社會現象을 一定한 問題意識의 視角에서 取舍・整理하고 거기에 立脚해서 法則性을 分析하는 社會科學의 方法은 社會經濟史學의 경우에 있어서도 例外는 아니다. 廣汎한 視野와 明確한 問題點을 喪失한 論稿란 참된 意味의 經濟史的 成果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

※

※